

경제

기아차 럭셔리 세단 K9 타보니



시속 210km 달려도 조용~ 첨단 사양은 덤

“벤츠·BMW 못지 않네”

기아차의 럭셔리 세단 'K9'은 K5-K7을 잇는 'K시리즈'의 말행이다. 기아차는 이 차로 세계적인 명차 'BMW'와 '벤츠'를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주행중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놀라울 정도다.

충격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후륜 구동의 안락함 때문에 210km를 넘어섰지만 거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K9은 기아차 처음으로 도전한 고급 후륜 세단이다.

속도·길안내 등 주행정보 홀로그램으로 한눈에 후륜구동 안락함에 운전자 보호 경보시스템 탁월

구성에 주행 시 핸들의 움직임이나 차량 기울기에 따라 램프의 빛각도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이 훨씬 편하다고 했다. 스마트 버튼을 이용한 시동은 무척 조용하다.

의 차량 접근을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첨단기능을 사용하며 운전재미에 빠지다 보니 환경 나비축제장은 너무 가까웠다.

고장~담양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차를 주차할 때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NM)'이 위력을 발휘한다.

막걸리·김치 수출 쉬워진다

농식품부, 발효 식품 검역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막걸리·김치의 중국 내 식품위생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막걸리는 중국이 발효주에 대해 세균 수 규격(50 cfu 이하/ml)을 적용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발효주의 세균 수 규격을 삭제하고 식중독균으로만 관리하는 내용의 '발효주 국가표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코스닥상장사 수익성 악화

광주·전남 1분기 매출 10%↑ 순이익 15%↓

광주·전남지역 코스닥상장사들의 1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사업연도 코스닥시장 1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6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89% 증가했다.

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5%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보다 소폭 내렸다.

1분기 소득·소비 증가 등록금 인하로 교육비 감소

1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9% 증가하고 소비지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비는 대학등록금 인하 덕에 감소했다. 소득은 하위분위 가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평균 소비성향은 5분위에서만 늘어났다.



“사랑을 퍼 드립니다”

KJB광주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오전 남구 서동 광주공원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인턴사원들이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행사를 펼쳤다.

주간 증시 포커스

힘든 한 주가 지나갔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유로불확실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고, 코스피는 울타리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7%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3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급락 따른 반등 전망...IT·자동차 저점 매수

10%가 넘는 낙폭을 보인 점이 증시에 부담을 더했다. 국면전환의 관점에서 미국에서 열린 지난주 8개국(G8) 정상회의나 23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를 통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될지도 여전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멘탈 흐름이 아직 살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식권드의 자금이 순유입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의 안전판으로서 연기금의 행보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치게 낙폭이 과대했다. 국내 증시 매력도가 충분히 높지만 만큼 추격 매도에 나설 시기는 아니며, 적극적인 대응은 단기 바닥을 확인한 이후로 미루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a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Japan.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